

디자인과 기호학 - 일상사물의 의미론적 차원

Design and Semiotics - Semantic Dimension of Everyday Things

이 병 종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Lee, Byeong-Jong

Dept. of Industrial Design KAIST

keywords: semiology, semiotics, semantics, syntactics, pragma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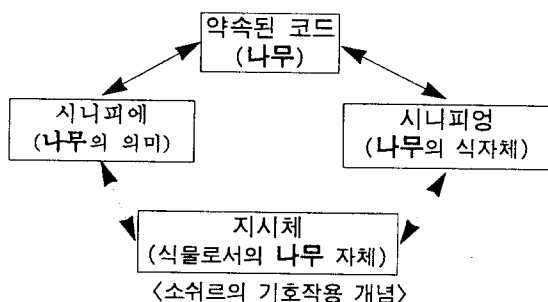
1. 기호학 정의

기호학은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 F. d. Saussure는 그의 '일반언어학강의'에서 '사회생활 속에서의 기호의 생태를 연구하는 과학'을 제안하고, 이를 세미올로지 sémiologie라고 칭하였다. 즉, 세미올로지는 인간의 언어활동에서 기호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법칙을 따르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구조주의자 structuralist들은 소쉬르의 정의에 따라 기호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세미올로지라 부른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미올로지는 바르트 R. Barthes에 의해, 모든 문화적 기호현상들의 체계를 언어의 기호체계에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되었다. 반면에 소쉬르와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미국의 실용주의 pragmatism 철학의 창시자이자 논리학자인 퍼스 C. S. Peirce는 기호를 구성하는 기호현상 semiosis의 근본적인 다양성과 본질을 다루는 세미오틱스 semiotics 학설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모리스 C. Morris는 세미오틱스를 논리학의 기초로서, 행동주의 behaviorism적 관점에서 어떤 것이 기호로 작용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기호의 과학으로 정립하였다. 따라서 영미의 구조주의자들은 퍼스와 모리스 이론에 따라 기호체계를 기호현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세미오틱스 semiotics라고 부른다. 이상과 같이 세미올로지와 세미오틱스 모두 근본적으로는 기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을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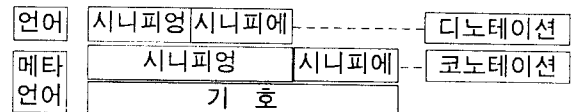
2. 기호학의 이론체계

소쉬르는 인간의 언어활동 langage을 언어 langue와 연사 parole로 구분하였다. 언어는 한국어, 영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설정된 언어활동의 약속된 코드로서 기호를 구성한다. 그리고 기호는 언어공동체 속에서 약속된 코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창출되지만, 그 구성원의 언어활동에 제약적이고 구속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연속성을 갖는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연사는 언어를 구사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로서, 기호를 창출하지는 못하고 단지 약속된 코드의 체계와 그 법칙에 따라 기호를 결합시킬 따름이다.

기호는 두 사람 이상 다수의 존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언어활동에서, 무엇을 대신하여 가르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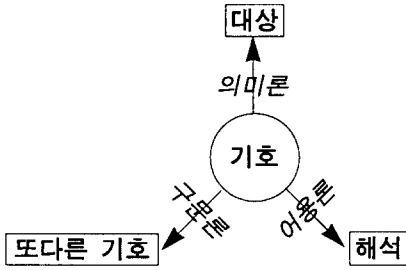
써 의미의 소통을 행한다. 여기에서 기호가 대신하는 것을 지시체 référent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기호가 대신하는 것을 기호로 전달하는 매개체를 시니피앙 signifiant, 기호로 전달하는 내용을 시니피에 signifié라고 부른다. 즉, 기호는 언어의 규칙체계에 기초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로 정의된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에는 사회적 관습이나 협약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것으로서, 실제 언어활동에서 기호의 사용은 강한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다. 언어활동에서 기호는 그 지시체를 직접적으로 대신함으로써 의미의 소통을 행한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전적인 기호의 의미소통체계를 이루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일차적 관계를 디노테이션 denot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차적 기호작용의 디노테이션은 사람들의 역사적, 사회적 경험에 따라 생산되는 주관적인 의미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하나의 문화적 내용을 전달한다. 즉, 디노테이션이 시니피앙으로 작용하고, 이에 역사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를 갖는 시니피에가 결합하여 이차적인 기호의 의미소통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이차적 의미소통체계를 코노테이션 connotation이라고 부르며, 일차적 의미소통체계에 의한 일상언어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메타언어 méta-langue라고도 한다. 따라서 메타언어의 대상이 되는 일상언어를 언어 langue라고 규정한다.



〈바르트의 기호소통체계 개념〉

이에 반하여, 퍼스는 기호의 의미소통체계를 3분법적인 기호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기호는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것이다. 기호가 어떤 이에게 전달되면, 곧 그의 정신 속에서 그것이 대신하는 것 또는 그로부터 발전하여 유추되는 것을 발생시킨다. 그 발생시킨 내용을 해석내용 interpretant이라고 한다. 해석내용은 그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호의 대상 object을 가리킨다. 퍼스의 기호현상은 이와 같이 기호, 대상, 해석내용이라는 세 가지 추상적 실체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변증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기호현상을 바탕으로 모리스는 행동주의적 기호과정 behavioristic sign process을 설명하였다. 모리스의 기호과정은 자극이 신경계에 전달되면, 그 자극의 대상에 대한 목적하는 바의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과 같이, 기호운반체 sign vehicle가 해석자 interpreter에게 목적하는 바의 해석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지시대상 designatum을 대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기호과정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추상적 실체들 사이의 상호작용관계는 의미론 semantics, 구문론 syntactics, 어용론 pragmatics으로 분류된다. 의미론은 기호와 대상물과의 관계를 다루는, 즉 기호의 의미작용법칙을 규명하는 분야이다. 구문론은 기호와 기호 사이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즉 언어에서 기호의 독자적인 결합을 결정하는 구성법칙과 한 기호가 어떤 다른 기호에 내포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변환법칙을 다루는 분야이다. 어용론은 기호와 해

석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즉 기호의 활용면에서의 관계를 고찰하는 분야이다.



〈모리스의 기호과정의 개념체계〉

3. 디자인과 기호학

소쉬르에서부터 시작된 세미올로기가 언어의 기호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비언어적 기호체계는 세미올로기 이론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비언어적 기호체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바르트는 기호의 의미소통작용에 주목하고, 언어적 기호의 작용현상을 의미소통체계에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언어적 기호들의 의미소통체계를 언어적 의미소통체계에 관련지어 규명하였다. 이로부터 세미올로기는 언어적 기호체계 뿐만 아니라, 그림, 조각, 사진, 영화, 그래픽, 광고 등의 시각적 기호체계를 비롯한 모든 문화적 기호체계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세미오틱스는 언어의 체계와는 다른 이미지 체계를 갖는 기호의 현상에서 출발하여 모든 기호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에, 비언어적 기호체계를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그러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건물, 가구, 자동차, 전자전자제품 등의 일상사물은 보통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시키기 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일상사물을 기호학적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 세미올로기, 세미오틱스 모두 의미소통작용을 전제로 한 이론이기에 - 의미의 소통이 아닌, 기능의 사용을 대상으로 하는 기호학적 전제조건이 새로이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바르트의 논리에 근거하여, 모든 문화적 산물은 근본적으로 소통의 대상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성립하려면, 문화적 산물의 하나인 일상사물이 갖는 기능의 사용이라는 것 역시 소통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상사물을 사용하는 과정이 소통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일상사물의 사용과정이란 그것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산되고, 사회적 연대에 따라 약속된 방식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사용과정은 일상사물이 갖는 기능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에, 기능이 소통되는 과정임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일상사물의 사용과정을 기능의 소통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따라 약속된 방식으로 일상사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회적 동의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사물은 사회적으로 그 특정 [사용방식]을 발생시키고, 그 [사용방식]의 사회적 의미를 나타낸다. 즉, 일상사물이 사회적으로는 [사용방식]을 전달하는 기호로 사용된다. 이상과 같은 일상사물의 사용과정은 바르트의 기호학적 이론으로 보다 명확하게 설명된다.

사용과정에서 일상사물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일상사물을 담고 있는 그릇, 즉 형태, 색채, 재료, 표면질감 등으로 이루어지는 [형상] Gestalt이다. 그리고 일상사물이 사용을 위해 목적하는 바, 즉 전달하는 내용은 [기능]이다. 따라서 [형상]은 시니피양, [기능]은 시니피에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일상사물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기능작용체

계를 이루는 [형상]과 [기능]의 일차적 관계는 사용과정에서 물리적 기능작용의 차원이다. 그리고 일상사물의 일차적 관계는 사용자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사용관계와 결합하여 일상사물의 이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일차적 관계는 기호적 [형상]으로 변형되고, 그에 연관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내용이 [기능]으로 작용하는 기호적 기능작용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이차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내용의 작용법칙에 대해서 바르트는 신화론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바르트의 일상사물의 신화란 일차적이고 물리적인 기능작용체계로부터 형성된 이차적 [형상]과 신화적 의미작용의 [기능]이 결합하는 법칙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이다. 이로서 일상사물의 [형상]이 그 [기능]과 결합하여 사회적 의미를 갖는 기호로 변환되는 것이 명확히 설명된다. 그러나 일상사물은 직접적인 기호적 실체가 될 수 없다. 만약, 일상사물이 기호라면, [형상]과 [기능]의 일차적 관계가 소멸되고 [형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일상사물은 그 존재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의 일차적 목적에 관계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 [형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의미를 갖는 것은 사용하기 위한 일상사물이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기호적 의미소통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세미오틱스는 세미올로기에 비해 사용과정에서 일어나는 디자인의 기능작용체계를 보다 명쾌한 논리구조로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이를 위하여, 무카로프스키 J. Mukarovsky의 인식과정 perceptual process에서 기호-기능의 작용을 바탕으로 건축의 기능에 대한 구조주의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건축을 물질과 물질작용이 사용되는 것과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 이 두 요소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축의 기능을 물질과 물질작용으로 나타나는 실제적 기능 practical function과 이론적 기능 theoretic function, 그리고 시각적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상징적 기능 symbolic function과 미적 기능 aesthetic function의 네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즉, 실제적 기능은 현실 합리적 요인으로서의 목적에 관계된 영역, 이론적 기능은 역사적 요인으로서의 목적에 관계된 영역, 상징적 기능은 사회연대적 요인으로서의 목적에 관계된 영역, 미적 기능은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목적에 관계된 기능의 영역이다. 이러한 무카로프스키의 기능영역은 모리스의 기호과정에서 네 개의 추상적 실체들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의미론, 구문론, 어용론의 분류와 유사하다. 즉, 사용과정에서 일상사물과 그 물질적 대상과의 관계에 의하여 물질과 물질의 작용으로 소통되는 것이 실제적 기능, 사용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작용되는 것이 상징적 기능, 그리고 일상사물에 대한 사용자의 개인적 경험과 관련되어 심미적 구성 및 변환의 독자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미적 기능이다. 따라서 미적 기능은 상징적 기능의 특수한 형태로,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개체인 개인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다. 반면에, 역사적 요인으로서의 목적을 수행하는 이론적 기능은 일상사물의 물질적 작용의 소통과 사회적 연대작용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로서 일상사물의 의미론적 차원은 일차적이고 객관적인 사용목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물질적 존재법칙의 해석에 관계된 분야로 설명된다. 이 분야는 일상사물을 물질적 존재만으로 이해하고, 그 물질적 기능의 최적화를 추구한 과거 기능주의 디자인으로 대변되어왔다. 그러나 일상사물은 문화적 존재이기도 하기에, 디자인에서 문화적 작용법칙을 이루는 문화적 기능의 최적화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사물의 디자인은 물질작용에 대한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작용에 대한 구문론과 어용론적 차원에서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